

• 언어 영역 •

정답

1	③	2	④	3	⑤	4	②	5	②
6	③	7	⑤	8	④	9	①	10	④
11	⑤	12	⑤	13	⑤	14	②	15	⑤
16	①	17	⑤	18	③	19	②	20	①
21	③	22	②	23	③	24	④	25	②
26	⑤	27	④	28	④	29	①	30	③
31	②	32	①	33	④	34	②	35	①
36	③	37	⑤	38	①	39	②	40	④
41	①	42	⑤	43	③	44	③	45	③
46	②	47	①	48	④	49	②	50	④

해설

1. 이제 여러분은 전래 민담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에 어떤 시골 양반이 딸을 하나 두었습니다. 외동딸이라 시집이나 잘 보내 주어야겠다고 붓짐을 싸 갖고 사윗감을 고르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당에 들어가 하룻밤을 쉬게 되었죠. 그런데 글방에서 공부하던 아이들 중에서 반듯하게 생긴 아이 하나를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 글방 선생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글방 선생은 꽤히 허락하면서, “그 아이는 바로 제 아들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골 양반은 택일까지 해 놓고 돌아와 결혼할 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결혼하는 날 장가오는 신랑을 보니 웬걸, 그 때 본 아이가 아닌, 서당에서 심부름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글방 선생은 조실부모를 한 아이를 맡아 기르면서 나무꾼 노릇을 시켰는데, 장가도 못 들고 해서 아들 대신 보냈던 것입니다. 시골 양반은 잠시 당황했으나 이미 결혼 약속을 했기에 할 수 없이 딸을 보내며, ‘사위가 가진 게 없으니 걱정이군. 예라, 모르겠다. 제 팔자가 좋으면 잘 살겠지.’ 했습니다. 5년쯤 후 그래도 자식이라 시골 양반이 딸을 찾아가 보니 생각보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시집을 잘못 보내 주어 후회하고 있다고 했더니 딸은 “별말씀을 다 하세요.” 하면서 장을 열어 보이는데, 돈이 짝 차 있었습니다. 까닭을 물으니 나무 장사를 해서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있는데 쿵 하고 나뭇짐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더니 사위가 들어오는데 더없이 미더워 보였습니다. 그 후 10년이 되던 해 갑부가 되더니 사위는 산 속으로 들어가 3년간 공부한 후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여 딸 부부는 잘 살았습니다. 한편, 글방 선생의 아들은 끝내 가난한 선비로서만 지냈다고 합니다.	
---	--

1.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시골 양반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딸을 결혼시킨다. 하지만 나중에 딸의 남편은 갑부가 되고 장원급제까지 할 정도로 잘 산다. 반면에 글방 선생의 아들은 끝내 가난한 선비로만 지냈다. 따라서 이 민담에 대해 당장은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좋아질 수 있다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오답풀이】 ① 사위가 바뀐 것은 시골 양반과 그의 딸에게 시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골 양반은 ‘예라 모르겠다. 제 팔자가 좋으면 잘 살겠지.’라고 하여 운명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이 민담에서 중요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은 사윗감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골 양반이 글방 선생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결국 심부름하는 아이가 사위가 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④ 이 민담에서 시기에 맞춰서 하는 일은 딸의 혼기를 놓치지 않는 것인데, 제때에 결혼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⑤ 이 민담에서는 도움을 받아 일의 결과가 좋아지는 사건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름진 곳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은 걸까요? 우리 몸에서 주름진 기관과 그곳의 기능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체의 작은창자에는 ‘융털’이라는 구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자벽이 돌출하여 주름진 곳입니다. 그런데 융털의 총 표면적은 200㎡로 테니스장의 면적과 거의 같고, 사람 몸의 표면적과 비교해 보면 100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융털은 주름을 통해 표면적을 넓힘으로써 소화된 영양분과 접촉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파 또한 그 표면이 안쪽으로 들어가 주름진 ‘폐포’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폐포는 양쪽 폐에 약 3억 개 정도가 있고 표면적은 약 160㎡입니다. 폐포 역시 주름을 통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넓힘으로써 외부 공기와 혈액 사이의 기체 교환을 원활하게 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대뇌의 피질 부위, 내장의 각 기관 등 우리 몸에는 주름이 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또한 각 기관이 주름을 통해 ()	
---	--

2. [출제의도] 들려준 내용을 이해하고 이어질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들려준 내용의 중심 화제는 신체 기관에 주름이 있는 이유와 주름의 기능이다. 강사는 화제를 두 가지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강사는 작은창자 벽의 주름진 곳인 ‘융털’은 표면적을 넓혀, 소화가 된 영양분과 접촉 기회를 갖게 되어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 허파의 주름진 곳인 ‘폐포’ 역시 주름을 통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넓혀 기체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로 보아 그 밖의 기관에서도 주름진 부분은 기관의 표면적을 넓혀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부드러운 것은 주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기관을 보호한다는 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또한 강사의 말을 통해 이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⑤ 외부 물질과 접촉한다는 것은 강사가 말한 내용에 드러나나 이것은 주름을 통해 표면적이 넓혀진 결과이지 크기를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

3. 이번에는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이번 주 들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속학자이신 김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 하면 생각나는 복날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복날은 매년 일정하지가 않던데요, 왜 그런가요? 김 선생님 : 그것은 복날이 양력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날은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세 번 해서 삼복이라고 하는데요, 하지와 입추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하지가 지난 다음의 세 번째 경일이 초복이고, 네 번째 경일이 중복입니다. 올해 하지가 6월 22일이고 24일이 경술일이니까 초복은 7월 14일이고 중복은 7월 24일이군요. 사회자 : 조금 복잡하군요. 그런데 ‘경일’이 무슨 뜻입니까? 김 선생님 : ‘경일’이란 말은 날짜를 갑자, 을축, 병인 등의 간지로 표시할 때 ‘경’자가 들어 있는 날을	
---	--

말하는데, 10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사회자 : 그럼 말복은 다섯 번째 경일인가요? 중복에서 10일 후가 8월 3일인데. 김 선생님 : 그렇지 않습니다. 말복은 입추가 지난 다음의 첫 번째 경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말복은 언제인가요? 김 선생님 : 올해 입추는 8월 8일이니까…….

3. [출제의도] 방송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김 선생님은 말복이 입추가 지난 다음의 첫 번째 경일이라고 했다. 따라서 8월 3일에서 입추가 지난 첫 번째 경일인 8월 13일이 말복이다.

[4~5] 이번에는 어느 학급 도서부의 토의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부장(남) : 지난달부터 옆 반에서는 자기 반 학생들끼리 책을 돌려 읽는 윤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대. 선아하고 현수,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선아(여) : 우리 반에서도 윤독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어. 윤독 운동은 우리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현수(남) : 나도 선아의 의견과 같아. 이 윤독 운동이 야말로 우리 반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부장 : 너희들 모두 찬성했으니까, 이제 윤독 도서를 어떻게 마련할지 이야기해 보자. 선아부터 이야기해 봐. 선아 : 나는 윤독할 책을 각자 집에서 한 권씩 가져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중학교 때도 그렇게 했는데 친구들의 호응도 좋았어. 따로 비용도 들지 않고 쉽고 편하게 책을 준비할 수 있잖아. 현수 : 그렇긴 한데 만약에 아이들이 읽고 싶지도 않은 책만 잔뜩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 우리 반 친구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먼저 조사해 보고, 그 결과대로 책을 구입하여 돌려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선아 : 그런데 누군가의 집에 있는 책을 또 사게 되면 낭비잖아. 나도 지난봄에 읽고 싶어서 사긴 했지만 안 읽고 놔둔 책이 있거든. 그러니 무조건 다 사지 말고 아이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조사하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각자 집에 그 책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어. 그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책만 구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부장, 우리 생각이 어때? 부장 : 난 좋아.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더 들어봐야 하니 다음 학급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보자.	
---	--

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과 그에 따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여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학교 때의 경험과 지난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언급하였다.

5. [출제의도] 토의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두 학생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윤독 운동에 필요한 도서를 마련하는 방법 때문이다. 선아는 급우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조사한 후, 그 중 각자의 집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없는 것만 구입해서 윤독 운동에 필요한 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현수는 급우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조사한 후, 그 결과대로 책을 구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두 학생은 급우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으로 윤독 도서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주제에 맞게 연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는 잘못된 체중 감량 방법의 위험성과 꾸준한 관리의 필요성,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 체중 감량을 하는 진정한 목적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각각 잘못된 학습 방법의 위험성과 꾸준한 학습의 필요성,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진정한 목적 등으로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③의 내용은 <보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잘못된 학습 방법이 학습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실력을 쌓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운동 방법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지 않고 몸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② 노력 없이 손쉽게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살 빼는 약’을 복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체중 감량의 목적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7. [출제의도] 다양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의 ㄱ은 국내 발생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놓았지만, 이를 통해 피해 액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ㄴ을 통해서도 전체적인 실업률이나 실업률의 증가 추세를 파악할 수 없다.

[오답풀이] (가)의 그래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불법 복제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나)의 ㄱ은 학생들이 불법 복제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ㄴ은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학교에서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8. [출제의도]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II-2-가’와 같은 내용이다. 학급 회장 활동은 학급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므로 중복된다. 따라서 삭제하거나 통합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내신 성적’은 성적만을 드러내는 단순 정보이므로 교과 성적의 특징을 보여주기 어렵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상승한 내신 평균 등급’으로 구체화한다. ② ‘교과 외 독서 활동’은 ‘고교 시절의 교과 성적의 특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그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교과에 비해 높은 ◇◇과목’으로 바꿔야 한다. ③ ‘고교 시절의 교내·외 활동’은 교내 활동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외 활동인 ‘환경 보호 단체 활동’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㉔은 학업 계획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거의 활동이므로 ‘IV. 그 외 본인이 알리고 싶은 내용’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제시된 조건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이 역설, 마법은 비유, 의문형으로 완곡하게 행동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①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에는 역설과 비유만, ③은 비유와 완곡만, ④, ⑤는 비유만 사용되었다.

10. [출제의도] 교쳐 쓰기가 적절하게 되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문장으로 삭제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글의 내용에 맞게 ㉔은 ‘응모 결과를 알려 주는 과정에’로 수정해야 한다. ② ㉔에서 ‘번’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③ ㉔은 생략된 주어 ‘저’와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메일을 받았습니다.’로 수정해야 한다. ⑤ ㉔ ‘치밀어지다’에는 불필요한 피동표현이 사용되었다.

11. [출제의도] 보조용언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 ‘싫다’는 ‘가다’의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보충한다.

[오답풀이] ① ‘보자’는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의 뜻으로 쓰인 본용언이다. ② ‘일어났다’는 ‘잠에서 깨어나다.’의 뜻으로 쓰인 본용언이다. ③ ‘왔다’는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의 뜻으로 쓰인 본용언

이다. ④ ‘가자’는 ‘장소를 이동하다.’의 뜻으로 쓰인 본용언이다.

12. [출제의도] 문장에 쓰인 다의어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의 ‘따르다’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의 의미이다.

[13~16] (고전소설) 작자 미상, ‘석화통전’

13.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표훈이 석처사가 상위 관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고 도망갔다고 했으므로, 석화룡을 찾아갔다는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표기가 장사랑에게 ‘화룡은 죽어서 없는가 하였던니’라고 한 말에서 추측할 수 있다. ② 표훈이 화룡에게 ‘석처사가 장사랑에게 붙잡힌 후’라고 한 말에서 추측할 수 있다. ③ 표훈이 화룡에게 ‘사랑이 문산을 지키며 살게 하여 문산영이라 하나이다.’라고 한 말에서 추측할 수 있다. ④ 표훈이 화룡에게 ‘이곳에 와 살기는 문산영을 쫓아왔거니와’라고 한 말에서 추측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대화에 담긴 인물의 심리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신을 패하게 한 장수가 하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표기에게 묻고 있으므로, 하늘의 뜻으로 여기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사랑의 남은 병사들을 천자의 백성으로 여기고 양식까지 주어 보내고 있다. ③ 군사들에게 붙잡히기보다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결심하고 있다. ④ 화룡이 파부 파사촌에 살았던 표훈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한 후에 문산에 살고 있는 까닭과 예전에 사람을 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15. [출제의도] 외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룡이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정보는 없고, 아버지인 석처사 또한 평범한 인물로 언급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화룡이 표훈을 만나 묻고 답하는 장면과 <보기>의 ‘조력자를 만나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내용과 관련되므로 적절하다. ② 표기가 20년 전에 화룡이 죽었다고 생각했음을 말하는 장면과 <보기>의 ‘어려서 버려져 적대자에게 죽을 고비를 맞는다.’는 내용과 관련되므로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한자성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표훈이 붙잡혀 대청 아래에 엎어지는 장면이므로 ‘휩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의 의미를 지닌 ‘속수무책(束手無策)’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설에 누워 쓸개를 맞본다는 뜻으로, 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괴롭고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③ 죽음과 삶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대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④ 마음과 힘을 한없이 수고롭게 하여 애를 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⑤ 난처한 일이나 불행이 앞친 데 덮쳐 잇따라 일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7~20] (예술) 민은기 외, ‘서양 음악의 이해’

17.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가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금관악기로서의 특징을 목관악기와와의 대조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또한 금관악기가 소리를 내는데 관여하는 각 장치들을 소개하며 그것들의 기능과 원리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금관악기가 소리 내는 현상에 관여하는 장치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뿐 다양한 해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금관악기의 문제점을 벨브라는 장치의 개발로 해결한 내용은 나오지만 이 문제 해결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18. [출제의도] 정보를 제시된 그림에 적용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벨브는 관의 길이를 길게 하여 다양한 음을 낼 뿐만 아니라 음역을 넓히는 기능을 한다.

[오답풀이] ① 마우스피스의 꺾은 알을수록 음색이 밝고 화려하여 고음을 연주하기에 적합하다. ② 마우스피스의 드로트는 직경이 넓어질수록 음색이 부드러워진다. ④ 벨브는 음역을 넓히고 다양한 음을 내게 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다. ⑤ 벨도 음색 결정에 영향을 준다.

19.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목관악기는 리드를 사용하고 금관악기는 입술을 사용하여 진동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금관악기의 입술이 목관악기의 리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목관악기는 주로 나무로 만들어진다. ③ 대체로 목관악기는 리드로, 금관악기는 입술로 진동을 만들어낸다. ④ 플루트는 현재 금속으로 되어 있으나 악기 분류상으로는 목관악기이므로 재질과 분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⑤ 금관악기의 입술 모양과 목관악기의 구멍을 막는 것은 음의 높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20. [출제의도] 용어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금관악기는 오케스트라와의 일부로 전체와 구성 요소의 관계라 할 수 있다. 합창단원도 합창단의 일부이므로 전체와 구성 요소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서로 대등한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장소와 사건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오케스트라의 일부로 서로 대등한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연주’가 부분, ‘음악회’가 전체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21~24] (과학) 이광연, ‘웃기는 수학이지 뭐야’

21. [출제의도] 글쓴이의 집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곱셈법이 있었지만, 이들이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겔로시아 곱셈법과 선긋기 계산법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서두에서 말했다. 그리고 겔로시아 곱셈법과 선긋기 계산법은 큰 수를 곱할 때 격자나 선을 많이 그려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는 오늘날의 곱셈법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결국 곱셈법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끝임 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이 글을 쓴 의도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글쓴이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된 질문은 ③의 ‘수학에서 곱셈법이 변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이다.

22.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근거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겔로시아 곱셈법으로 ‘72×43’을 계산할 때 7과 4를 곱한 결과인 28을 왼쪽 위 칸에 10의 자리 2와 1의 자리 8로 나누어 각각 숫자 하나씩을 써 넣고,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2와 4를 곱한 결과인 8을 써 넣되 대각선 위쪽에 0을 쓰고 밑에 8을 써 넣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28을 10의 자리 2와 1의 자리 8로 나누어 각각 숫자 하나씩을 써 넣는 것처럼, 8도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나누어 써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8을 10자리수와 1의 자리수로 나타내면 08이다.

23. [출제의도]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 및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사선을 왼쪽 위에 2개, 오른쪽 아래에 3개의 사선을 그었다는 것은 곱셈할 첫 번째 수가 23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2개, 오른쪽 위에 1개의 사선을 그었다는 것은 곱셈할 두 번째 수가 21임을 의미한다. 두 수 모두 2자리이므로 겔로시아 곱셈법으로 하면 가로와 세로 모두 2개의 칸이 있는 격자무늬를 그려야 한다.

[오답풀이] ② <보기>의 사선들이 3부분에서 만나므로 가운데 부분이 10의 자리이고 만나는 점은 8개이다. ④ <보기>를 겔로시아 곱셈법으로 나타내면 가로와 세로 2개의 칸이 있는 격자무늬를 만들어야 한다. 그 중에서 오른쪽 위 칸은 3과 2를 곱한 결과

인 ‘06’을 형식에 맞추어 나타내면 된다. ⑤ 겐로시아 곱셈법에서 사선을 바깥으로 연장하여 사선 안의 수를 더했을 때 1의 자릿수는 3이 된다.

24. [출제의도] 조사의 쓰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다른 것과 비교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는데, ㉡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25~28] (현대시) (가) 유치환, ‘생명의 서(書)’ / (나) 김광규, ‘4월의 가로수’ / (다) 오봉옥, ‘꽃’

25.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열렬한 고독을 통해 본질을 깨닫고자 하는 삶의 자세와 그것을 추구하는 강한 의지가, (다)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자세를 통해 이제는 더욱 알찬 꽃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다. ③ (나)와 (다)가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는 개인의 성찰과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④ (가)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드러내는 구절을 찾을 수 없다. 넓게 보아 (나)와 (다)는 자연물을 시적 대상으로 삼으면서 잎이 돌아나는 나무의 생명력과 꽃이 지는 자연의 질서를 드러내고 있다.

26.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생명력이 고갈되어 삶에 대한 회의에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 본원적인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취한 방법이 ‘열렬한 고독’이다. 한편, ㉡은 현재 머리와 팔, 다리가 잘린 토르소처럼 몸통만 남은 가로수로서 숨막히게 답답함을 느끼다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안타깝게 몸부림치다가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잎이 돋게 된다. ‘늘어진 가지’는 ㉡으로 남기 이전의 상태이므로 이것을 거쳐 ㉢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27. [출제의도] 작품 간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4월의 가로수를 몸통만 남아 몸부림치며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는 어떤 존재로 투영하면서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등을 사용하고 있다. (다)는 3연에서 촉각적, 시각적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② 두 작품 모두 영탄적 표현은 없다. ③ 의인화된 대상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28. [출제의도]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과거의 삶을 동경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의 자신의 삶과 태도를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다. ‘아프다’라는 정서는 치열한 성찰의 고통과 그 참담한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성찰의 결과 영원할 줄 알았던 꽃들이 지금은 모두 떨어졌으며 자신의 삶에서 현재 성취한 바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너무 쉽게 꽃을 피웠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쉽게 지는 꽃이 아닌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꽃을 피우기 위해 ‘생기가 / 무섭게 흔들어도’ 참고 응축시켜 보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즉 ‘내 몸의 수만 개 이파리들은’은 과거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과 관련된다.

[29~31] (사회) 김성애, ‘사용자 환경과 스마트폰 특성 요인이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 및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9.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기존의 사용자(소비자) 집단의 네트워크가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지, 이

로 인해 가격이 변화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② 첫째 문단에서 한글 자판의 사례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식(세벌식 자판)이 꼭 더 많이 선택되는 것이 아님을 드러냈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소비자는 제품의 질이나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둘째 문단에 제시된 내용이다.

30.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기존의 사용자(소비자) 집단의 네트워크가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가격이나 질에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질 때 네트워크 외부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③에서 상훈이의 결정은 요금이라는 서비스의 가격에 관한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외부성의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는 ‘친구’의 영향, ④는 기존에 네비게이션을 구입한 사람들의 영향, ⑤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31.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두 제품 사이의 경쟁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문단의 내용과 넷째 문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그래프를 해석하면, 선발 업체인 ㉡가 초기(㉠ 이전 시기)에 시장을 독점하면서 표준의 지위를 누리다가, ㉠ 시점에서 새로운 제품인 ㉢의 출현으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져서 결국은 ㉢보다 낮아지고, ㉢가 새로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이 드러난다. 그런데 ②는 새로운 제품과 기존의 제품을 뒤바꿔서 파악하고 있다.

[32~35] (현대소설) 박태원, ‘천변풍경’

32.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소년의 눈을 통해 천변주변의 상황과 인물들의 모습이 서술되고 있다.

[오답풀이] ② 현재에 대한 서술이 중심이 되고 있고 과거 사건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서술자는 인물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인물 간의 갈등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인물의 이동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것이 사건 전개에 속도를 바꾸지는 않는다. ⑤ 주변을 관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33.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작중 상황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둘째 대장 거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소년과 손님은 둘째 대장 거지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으므로 연민의 감정은 추론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소년은 이발소에서 천변 주변의 인물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으며, 이를 재미있어 하고 있으므로 주변 인물들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② 중년 신사가 자신의 시곗줄이 싹팔금인 것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부분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③ 이발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장면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⑤ 중년 신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은근한 기쁨을 갖는다는 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년은 자신이 주변 인물들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소년의 예상이 적중하는 것에 놀라는 모습이다. ③ 둘째 대장 거지가 술값을 내기 위해 매번 동전을 십전짜리로 바꾸는 행동에서 파악할 수 있다. ④ 김 서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년에게 잔소리를 그만하라고 한 데에서 파악할 수 있다. ⑤ 장구 대가리 처남의 행위를 관찰한 모습에서 장구 대가리 처남에 대한 안타까움을 파악할 수 있다.

35. [출제의도] 문체적 특징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부분은 긴 문장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사의 모습을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하고 있다. 또 빈번하게 쉼표를 사용하였는데, 쉼표를 사용하면 해당 부분을 독자들이 끊어 읽게 되므로 자연스레 쉼표가 사용된 부분에 주목하게 만든다. 배경에 대한 묘사는 잘 드러나지 않고, 문장의 종결방식은 평서문의 종결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양한 종결방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ㄱ’과 ‘ㄷ’이므로 이 둘이 묶인 것을 찾아야 한다.

[36~38] (언어) 홍운표, ‘떠어쓰기는 언제부터 왜 할까요?’

36.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 제시된 옛 문헌들은 모두 세로쓰기가 되어 있고, 구두점의 구점이 오늘날의 마침표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마침표의 역할을 했다는 말은 구점이 찍힌 문장의 경우 끝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문장의 끝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둘째 문단에서 구두점은 한문을 읽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서 한글 문헌에 적용되었다고 하였다. ② 마지막 문단에서 값이 싼 양지와 신식 활자가 도입되면서 띄어쓰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④ <훈민정음 해례본>과 <용비어천가 제2장> 등에 구두점이 사용된 것으로 볼 때, 당시에도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들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추리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그림을 보면 ‘남근’, ‘뿔썩’, ‘도코’ 아래에 구두점이 지문의 그림과 같이 찍혀 있다. 그리고 지문의 <장수경 언해>의 구두점에 대한 설명 부분을 보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 관형어와 체언 사이, 부사어와 서술어 사이에 구두점이 찍혀 있어서, 현대어의 띄어쓰기 한 곳과 비슷한 곳에 구두점을 찍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용비어천가 제2장>에 적용하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인 ㉠, ㉡, ㉢, 관형어와 체언 사이인 ㉣, 부사어와 동사구 사이인 ㉤, 부사어와 동사 사이인 ㉡에도 구두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8.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을 보면, 앞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띄어쓰기를 고의로 달리 해석하여 대답을 함으로써 유머러스한 표현이 되었다. 그런데 ㉠은 앞의 발언에는 없는 연음 현상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대답한 것으로서 띄어쓰기와는 관계가 없다.

[오답풀이] ② “넌 예쁜 천 사.”로, ③ “다시만 나줘.”로, ④ “너 무 해.”로, ⑤ “나 미 처.”로 각각 띄어쓰기를 바꾸어 대답한 경우이다.

[39~43] (시가, 수필 복합) (가)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나) 허난설헌, ‘규원가’ / (다) 윤오영, ‘찰밥’

39.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기다림의 애절함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나)는 돌아오지 않는 임(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임에 대한 그리움과 한(恨)을 드러낸 작품이다. (다)는 중년이 된 작가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식 사랑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 (나)에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나 그 대상은 부정적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확인할 수 없다. ③ (다)에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나 이를 반성까지 연결해 이해할 수는 없다. (가), (나)에는 삶에 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다.

40.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상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

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 싸고’ 꼴의 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B]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지 않다. 글자 수와 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획득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A]는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니’, [B]는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끄쳤는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A]는 만남을 방해받는 상황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빗대어, [B]는 ‘약수’에 막혀 오지 못하는 상황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⑤ [A]는 성→담→집→두지→궤→결박→자물쇠로 이어지는 연쇄적 표현을 통해, [B]는 ‘견우직녀’와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여 기다림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특정 시어 및 단어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은 운명이 기박한 여인이라는 의미로 화자 자신을 지칭한다. (다)의 ‘백수(白首) 오십’은 흰 머리카락을 가진 50세의 중년 남자를 지칭하는 말로 역시 화자 자신을 지칭하고 있다. 작품에서 ‘나’라는 말 대신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 것은 전개되어 온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상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주고 있다.

42.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 ‘찰밥’은 이 작품의 창작 계기가 되어 작품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이다. 이를 내용과 관련지어 이해해 보면, ⑤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는 실마리와 ‘찰밥’을 연관 지은 것은 ‘찰밥’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용 전개상 어머니가 가난한 살림살이 속에서 자식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찰밥’이라는 소재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내용을 통해 어머니가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화자가 인식 또는 깨닫게 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자식의 소풍날 귀한 찰밥을 챙겨주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는 찰밥을 통해 어머니의 기대감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③ 소풍 때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는 화자의 모습이 ‘찰밥’으로 연결되고 있다. ④ 찰밥을 통해 어머니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고하게 되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43. **[출제의도]** 내용의 흐름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에 어머니가 화자에게 줄 찰밥을 짓고 있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포착한 부분이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떠올린 것이 아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또렷한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해 내고 있다.

[오답풀이] ④ 어머니의 기대감대로 살지 못한 자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굶은 눈물을 닦는 모습으로 포착하여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44 ~ 46] (기술) 김미화 역, ‘헬리오스택과 빗가이드’

44. **[출제의도]** 개괄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 헬리오스택과 빗가이드를 연결한 조명 장치의 설치 비용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6문단을 참고할 때, 이 조명 장치의 효과를 알 수 있다. 이 조명 장치는 자연광을 이용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② 2문단과 3문단을 통해 이 조명 장치의 구조를 알 수 있다. 2문단은 헬리오스택의 구조를 소개하고 있고, 3문단은 빗가이드의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④ 헬리오스택으로 모은 빛을 건물 내의 빗가이드에 전달하여 건물의 조명으로 활용된다. 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등장했다.

45.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빗조준렌즈로, ㉕를 통과하여 ㉖에 반사된 빛을 평행한 광선으로 바꿔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㉔를 통과한 빛이 좌우로 흩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㉕의 원반형의 큰 거울은 빛을 모아 마주보고 있는 작은 거울에 반사시키고, ㉕의 작은 거울은 이 빛을 다시 반사시켜 ㉖에 전달한다. ② ㉖는 헬리오스택으로부터 자신에게 도달한 빛을 반사시켜 빗가이드쪽으로 방향을 바꿔 준다. ④ ㉕ 안의 빛은 수직으로 이동하다가 각 층에 설치된 ㉔를 만나면 수평으로도 이동한다. 빛이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㉕와 ㉔가 만나는 곳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⑤ ㉔는 건물의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다.

46.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빗가이드를 둘러싸고 있는 특수한 광학 필름은 빗가이드 안의 빛을 대부분 반사시켜 원 상태 거의 그대로 빗가이드 안에 머물게 한다고 했다. 따라서 ㉑에 들어갈 말은 ‘빛의 손실을 줄여’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특수한 광학 필름은 빗가이드 안의 빛을 대부분 반사시켜 빛의 손실을 줄인다. 빛의 굴절이 일어나면 빗가이드 안의 빛은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특수한 광학 필름은 빗가이드 안에서 이러한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준다. ③ 특수한 광학 필름은 빗가이드 안의 빛의 손상을 막아준다. 그러나 빛의 이동을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

[47 ~ 50] (인문) 김진호, ‘괴짜 통계학’

47.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개념을 밝히고,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하거나 인과관계의 순서를 반대로 생각함으로써 사건의 원인을 혼동하는 오류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글 속에 상관관계의 뜻만 나와 있을 뿐 종류가 여러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③ 인과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에 관한 내용은 셋째 문단에만 나와 있다. ④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글의 중심 내용을 드러내는 표제와 부제라고 볼 수 없다. ⑤ 인과관계 파악의 중요성은 여섯째 문단에만 나와 있어, 표제와 부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48. **[출제의도]** 정보의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앞 문장을 통해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뒤 문장을 통해 상관관계가 있어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뒤 문맥을 통해 ㉑의 의미를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도 있는 것이지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통계적인 값에 의해 결정될 뿐이며,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인과관계인 것은 아니다. 상관관계가 높아도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상관관계가 낮아도 인과관계일 수 있다. ②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다. ③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가 있다.

49. **[출제의도]** 정보에 적합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셋째 문단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㉑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을 때,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는데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앞의 사건이 뒤의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이를 전후인과의 오류라고 한다. 닭이 울고 나서 해가 뜨는 것을 여러 번 본 사람이, 닭이 울기 때문에 해가 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후인과의 오류에 속한다.

[오답풀이] 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맞는 판단을 두루 맞는 판단이라고 여기는 오류이다. ③ 흑백 사고의 오류로, 두 가지 중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판단하는 오류이다. ④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파악한 경우이다. 부자가 되면 부지런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⑤ 결합의 오류로, 부분을 모두 합하면 그와 똑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 되리라 생각하는 오류이다.

50.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바꾸다’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교환(交換)하다’, ‘교체(交替)하다’, ‘대체(代替)하다’, ‘변화(變化)시키다’, ‘변경(變更)하다’, ‘전환(轉換)하다’ 등 많이 있는데, 문맥상 이 경우에는 ‘교체(交替)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